『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석

An Analysis of the Literature Sources of *Sikuquanshuzongmoktiyao*

한 미 경 (Mikyung Han)*

목 차

1. 서 론
2.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용어와 분류
3.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종류
4.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석
5. 결 론

초 록

이 논고는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류와 종류의 조사 및 분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류를 크게 국가본, 지방본, 개인본과 관원본 및 사회유통본의 5종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내부본과 칙찬본 등은 국가본으로 분류하고 각 지방과 지역의 각성채진본을 지방본으로 분류하였다. 셋째, 家藏本으로 명명하여 구별이 명확하지 않았던 개인본과 관원본은 전자는 省名과 장서가의 이름으로 조합된 경우, 후자는 관직명과 성명으로 조합한 경우로 분류하였다. 넷째, 사회유통본은 당시 사회에서 유통되던 통행본 외에 구입본을 포함하였다. 다섯째, 『사고전서』에 채록된 문헌은 전국적 규모이며, 문헌수는 지방본, 국가본, 개인본, 관원본, 사회유통본의 순으로 많음을 밝혔다. 여섯째, 1) 관원본의 관직명, 2) 개인본 중의 상호명, 3) 방각본 대신 통행본 명칭을 취하고 있는 점을 통해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 명명에 다소 명분을 중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a view to investigating and analyzing classification and types of literature sources of *Sikuquanshuzongmutiyao*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literature sources of *Sikuquanshuzongmutiyao* were classified mainly into five types including national version, provincial version, individual version, public official version, and societal distribution version. Second, court and Emperor's version was classified as national version, while literatures collected from state and province were classified as provincial version. Third, each of individual version and public official version, which were not clearly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 due to their being named private version, were distinctively and separately classified. They were classified into individual version if associated by province name and book owners' names and into public official version if associated by public post names and public official's name. Fourth, societal distribution version included distributed and purchased versions in the society of those days. Fifth, in terms of the number of literature listed in all descriptions of *Sikuquanshu*, provincial version, national version, individual version, public official version, and societal distribution version were more found in the descending order. Sixth, it was found out that causes are being a little more stressed in the description of reference names of *Sikuquanshuzongmutiyao* through 1) public post names on public official version, 2) company names on private version, and 3) names of societal distribution version instead of sales version.

키워드: 사고전서, 사고전서총목,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 저록
Sikuquanshu, *Sikuquanshuzongmok*, *Sikuquanshuzongmotiyao*, Literature Sources, Description

---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조교수(bib4u@kgu.ac.kr / ISNI 0000 0000 6884 6257)
논문접수일자: 2019년 4월 20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5월 13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5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2): 295-312,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2.295〕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중국은 類書나 叢書의 편집이 성행하였는데, 명대의『永樂大全』과 청대의『古今圖書集成』과『四庫全書』등이 그 예이다. 그중『사고전서』는『고금도서집성』등이 미흡하다고 생각한 청 乾隆帝가 내린 1772년의 유서 수집 旨諭 이후 이듬해에 四庫全書館이 개설되면서 시작되었다.

『사고전서』는 당시까지 전래되어오는 고금의 전적을 총망라한다는 취지로 궁중의 소장본을 포함하여 각 지방과 개인소장의 문헌에 이르기까지 광범하게 수집하였다.『사고전서』편찬 사업을 위해 당대의 저명한 관원과 학자 등 360여 명이 편찬에 동원되었으며, 수집된 전적은 선별되어 선사되거나 판각되고 제요 및 존목으로 서지화되었다.

즉, 희귀본들은『武英殿聚珍版叢書』로 목판본으로 간행되었고, 실용적인 문헌들은 校讎 후 필사되어『사고전서』로 간행하였으며, 통속적인 문헌들은 서명과 간략한 주를 달아『四庫全書存目叢書』로 간행되었다. 그중 선사된 판본의 제요를 작성하여 내용과 유포 및 저자 등을 기록한『四庫全書總目提要』는『사고전서』편찬과 함께 문헌의 해제서로서 편수되기 시작하여 최종적으로 수정, 보완 과정을 거쳐 건륭 60년(1795)에 완성되었다. 이는『사고전서』문헌을 경사자집의 4부로 분류하고 서명기입을 기본으로 문헌 출처 및 저자와 서명사항 및 판본과 내용 등을 소개하고 있다.

오늘날 연구자에게 있어 고금의 고전을 총망라한『사고전서』의 가치는 매우 크다. 또한『사고전서』문헌을 분류・목록 및 해제하고 있는『사고전서총목제요』는 연구자의 입문서이자 중요 서지학적 연구성과로서의 가치 또한 작다고 할 수 없다.『사고전서총목제요』에 대한 서지학적 선행연구들은 살펴보면 주로 총서 완성의 시기, 목록학적 및 주제별 고찰 및 일부 문헌 출처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특히 문헌 출처의 경우『各省進呈書目』이후 이를 교정 정리한『四庫採進書目』과『四庫全書纂修考』등이 출판되고 이후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구분 고찰해 왔다. 다만 문헌 출처에 대한 분류의 종합적 고찰 및 상세한 조사는 찾아지지 않는다.

이에 이 논고는『사고전서총목제요』문헌 출처의 분류와 종류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문헌 출처를 종합 분류하고 그 종류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이 논고는『사고전서총목제요』문헌 출처의 분류와 종류에 대한 조사 분석을 목적으로 문헌적 연구와 메타 스터디 연구 및 역사적 연구 및 서지학적 연구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사고전서총목제요』문헌 출처의 분류에 대한 종합적 고찰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대상으로 '문헌 출처의 고찰'과 '문헌 출처 종류의 고찰'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둘째,『사고전서총목제요』문헌 출처의 종류는 선행연구 분석 결과 종합 도출된 국가본, 지방본, 사회유통본, 개인본 및 관원본의 다섯 종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인 해당 문헌 출처명들을

고찰하였다.

셋째, 문헌 출처명의 실제는 『사고전서총목제요』의 著錄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되, '三通本藏本'과 '翰林院藏本' 및 '구입본(購進本)'과 같은 일부 存目 상의 문헌 출처명도 포함하였다.

넷째, 제요 수록 문헌 출처의 전체적인 정리의 경우 『各省進呈書目』을 교정 정리한 『四庫全書纂修考』를 참고하되 이 논고에서 조사 분석된 내용으로 보완 정리하였다.

다섯째, 지방본의 지방과 지역 등에 대한 지리적 조사와 개인본과 관원본의 해당 인물에 대한 사항 및 관직 등에 대한 조사는 중국의 대표적인 포털과 백과사전을 참고하였다(Baidu; Wikipedia; Chinabaike).

2.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용어와 분류

『사고전서총목제요』는 『사고전서』에 채록된 문헌들의 출처에 대하여 일정의 기준으로 명명하여 밝히고 있다. 이 장에서는 우선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분류 및 정의를 조사하고, 분류에 대한 종합적 정리를 진행하고자 한다.

2.1 용어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에 대한 용어와 분류의 조사를 위하여 선행연구를 대상으로 '문헌 출처의 고찰'과 '문헌 출처 종류의 고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사고전서』 또는 『사고전서총목제요』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저본의 범위 및 문헌 출처명에 대한 기술 외에 문헌 출처에 대한 분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선행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문헌 출처'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수집도서', '판본', '저본', '사고저본', '저본출처', '의거서본'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는 '저본' 또는 '사고저본'이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부 논고의 경우 '사고저본'의 범위를 1) 반드시 『사고전서』에 선사된 것, 2) 『사고전서』의 선사 대상이 된 판본, 3) '存目之書'는 저본으로 볼 수 없음, 4) 칙찬본은 '新修之書'로 저본은 없는 것으로 한정하고, 사고전서의 저본은 採進本, 內府本, 家藏本, 通行本의 4종임을 강조하고 있다(張升 2008).

이에 이 논고에서는 채록의 과정을 거쳐 실제 『사고전서』에 수록되고 『사고전서총목제요』에 해제되어 있는 출처명이므로 관련 용어로 '문헌 출처'를 사용하기로 한다.

2.2 분류

문헌 출처를 고찰하고 있는 일부 선행연구의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류와 출처명의 정의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와 같이 문헌 출처의 분류는 대체적으로 6종이나 출처명에 일부 차이가 있고, 문헌 출처의 분류에 따른 정의도 다소 차이가 있다

따라서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류를 재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과 같이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

〈표 1〉 문헌 출처와 출처의 종류

	저자와 년도	논문제목 및 서명	용어	분류
문헌 출처의 고찰	徐進 외, 2018	從『四庫全書』私人進獻本看清初私家藏書		- 私人進獻本
	吳元, 2015	『四庫全書』官員獻書群体考略		- 官員獻書
	楊洪升, 2008	『四庫全書』底本考	저본	- (勅撰本), 採進本, 內府本, 家藏本, 通行本
	楊洪升, 2009	『四庫全書』底本續考	저본	- (勅撰本), 採進本, 內府本, 家藏本, 通行本
	江慶柏, 2008	四庫全書私人呈送本中的鄭大節家藏本	저본	- 家藏本
	江慶柏, 2007	四庫全書私人呈送本中的家族本		- 私人呈送本, 家族本
문헌 출처 종류의 고찰	리상용, 2017	『四庫全書總目提要』의 목록기술 방식에 대한 연구	판본	- (勅撰本), 官員採進本, 個人呈送本, 通行本, 內府本, 永樂大典本, (+購進本)
	張升, 2008	四庫全書的底本与稿本	사고저본 사고고본	- 採進本, 內府本, 家藏本, 通行本 - 勅撰本 - 永樂大全本(四庫稿本)
	楊科霖, 2005	『四庫全書總目提要』著錄「內府藏本」研究	저본출처	- 內府藏本 - 各省採進本, 內府藏本, 內府刊本, 永樂大典本, 通行本, 個人進獻之本
	Baidu, 2019	四庫全書總目提要	출처, 저본	- 內府本, 贊撰本, 各省采進本, 私人進獻本, 通行本, 『永樂大典』本
	韓非木 編, 1971	中國의 典籍	근거 도서	- 勅撰本, 內府本, 各省採進本, 私人進獻本(個人進獻本), 通行本, 永樂大全本
	郭伯赫, 1951	四庫全書纂修考	依據書本	- 各省採進本, 通行本, 內府藏本, 內府刊本, 三通館藏本, 翰林院藏本, 永樂大典本, 勅撰本, 家藏本

〈표 2〉 문헌 출처의 정의 사례

Baike, 2019	리상용, 2017	韓非木, 1971
贊撰本 : 청초-건륭 시기의 봉칙 편찬서적, 제왕의 서적 포함	(勅撰本) : 『사고전서』 편찬 당시까지 나온 청나라의 흠정서, 어정서, 어찬서, 명찬서	勅撰本 : 청초부터 건륭제 때까지 황제의 명으로 편찬한 책
內府本 : 정부장서로서 武英殿 등 內廷 각처의 장서	內府本 : 궁중에서 소장하거나 판각한 서적, 주로 '內府藏本', '內部刊本' 또는 '內廷藏本'이라 표시	內府本 : 황제의 열람을 위해 궁궐이나 어원에 소장하고 있던 책
永樂大典本 : 『영악대전』의 輯錄을 출처로 하는 佚書	永樂大典本 : 『영락대전』에 수록된 서적을 뽑아 낸 것	永樂大典本 : 朱筠의 청으로 失傳된 책 중에서 영락대전에 완질이 들어있는 것을 골라 繕寫한 것
各省采進本 : 各省의 督撫가 징집한 도서	官員採進本 : 각 지역의 관원이 해당 지역에서 서적을 찾아 모아서 진상한 서적	各省採進本 : 각 성에서 수집한 장서를 관의 비용으로 구입하거나 빌려 베낀 것
私人進獻本 : 各省의 장서가가 자발적 혹은 명을 받들어 進呈한 문헌	個人呈送本 : 개인 소장가 또는 장서가가 呈送한 서적 - 지역명에 개인의 성명 또는 서재명이나 장서각명+家藏本 등의 형식 - 서적의 성격에 따라서 '관직명+성명+購進本', '관직명+성명+刊本 또는 家刊本', '관직명+성명+進呈本' 등 다양하게 표시	個人進獻本 : 4대 장서가의 진헌본
通行本 : 사회에 유통되는 책에서 채록된 문헌	通行本 : 당시 시중에서 판매되는 서적	通行本 : 사회 유통되던 책

〈표 3〉 문헌 출처 분류의 정리

선행연구 / 분류	6종					9종	기타
	리상용, 2017	楊果霖, 2005	韓非木, 1971	張升, 2008	Baike, 2019	郭伯赫, 1951	
국가본	(勅撰本)	勅撰本		贊撰本	+勅撰本	勅撰本	
	內府本	內府本	內府刊本	內府本	內府本	內府藏本	
			內府藏本			內府刊本	
	永樂大典本	永樂大典本	永樂大典本	永樂大典本	+永樂大全本	永樂大典本	
						三通館藏本	
						翰林院藏本	
지방본		各省採進本	各省採進本	各省采進本	採進本	各省採進本	
개인본	個人呈送本	私人進獻本 (個人進獻本)	個人進獻之本	私人進獻本			個人進獻之本 (徐進 외, 2018)
							私人呈送本 (江慶柏, 2007)
관원본	官員採進本				家藏本	家藏本	官員獻書 (吳元, 2015)
							家藏本 (江慶柏, 2008)
							家族本 (江慶柏, 2007)
사회 유통본	通行本	通行本	通行本	通行本	通行本	通行本	
	(+購進本)						

처는 일반적으로 6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사고전서찬수고』의 경우 내정 각처를 포함하여 세부적으로 9종으로도 구분하고 있다. 그중 일반적으로 불려 온 명칭인 1) 각성채진본, 2) 개인진헌본, 3) 관원채진본은 혼용되기도 하고 채진본, 진헌본 등으로 구분하기도 하지만 실제 모두 다른 문헌 출처이다. 이에 이번 조사를 통하여 추가한 구입본인 '購進本'을 포함하여 문헌 출처의 종류를 지리적 범위와 성격을 기준으로 국가본(勅撰本, 內府本, 永樂大典本, 三通館藏本, 翰林院藏本), 지방본(各省採進本), 개인본(個人進獻本, 個人呈送本 등), 관원본(官員採進本, 家藏本, 家族本) 및 사회유통본(通行本, 購進本)의 5종으로 종합 정리 및 분류할 수 있다.

3.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종류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헌 출처에 대하여 이상과 같이 종합 분류한 국가본, 지방본, 사회유통본, 개인본 및 관원본의 구체적인 실제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표 4〉 참조).

3.1 국가본

국가본의 경우 勅撰本, 內府本, 永樂大典本, 三通館藏本과 翰林院藏本 등이 있다.

우선 칙찬본의 경우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특별히 명명하고 있기보다는 연구자들에 의

〈표 4〉 문헌 출처의 종류

종류	통칭	사고전서총목제요의 명칭	비고
국가본	內府本	勅撰本, 內府本, 永樂大典本, 三通館藏本, 翰林院藏本	- 5구분
지방본	採進本 各省採進本	浙江巡撫采進本, 江蘇巡撫采進本, 安徽巡撫采進本, 江西巡撫采進本, 兩淮鹽政采進本, 兩江總督采進本	- 6종
개인본	家藏本 個人進獻本 私人進獻本 個人呈送本	浙江範懋柱家天一閣藏本, 浙江汪啓淑家藏本, 兩淮馬裕家藏本, 兩淮江廣達家藏本, 浙江鄭大節家藏本, 浙江朱彝尊家曝書亭藏本	- 6종
관원본	家藏本 家族本	大理寺卿陸錫熊家藏本, 大學士于敏中家藏本, 大學士英廉家藏本, 兵部侍郎紀昀家藏本, 戶部尙書王際華家藏本, 編修邵晉涵家藏本, 編修周永年家藏本, 編修程晉芳家藏本	- 10종 - 編修周永年家藏本과 編修程晉芳家藏本: 존목 수록
		桂林府同知李文藻刊本, 廣東潮陽縣知縣李文藻家刊本	
사회유통본	通行本	通行本	- 2구분 - 大學士英廉購進本과 侍郎金簡購進本: 존목 수록
	購進本	大學士英廉購進本, 侍郎金簡購進本	

하여 불리 우는 명칭으로 일명 '贊撰本'이라고도 한다. 즉, 『사고전서』가 간행되던 청나라 때 편찬된 흠정서, 어정서, 어찬서, 명찬서 등을 이른다(리상용 2017).

둘째, '내부본'은 '內府本' 또는 '內府藏本'과 '內府刊本'으로 기술하고 있으며, 일부 '內廷藏本'으로 명명하고 있기도 하다. 내부는 청대의 황실장서를 의미하며, 장본과 간본은 소장본과 간사본의 차이에 따른 명명이나 구별의 기준은 크지 않다. 즉, 이는 궁정 소장의 도서는 모두 내부본으로 불리 우며, 전적 소장처는 하나는 아니다. 즉, 劉兆祐의 『中國目錄學』에 의하면 皇史宬, 懋勤殿, 摛藻堂, 昭仁殿, 武英殿, 景陽宮, 上書房, 內閣大庫, 會經堂 등에 나누어 소장된 도서를 통칭하여 내부본이라 부른다(楊果霖 2005).

셋째, '영락대전본'은 『永樂大典』 수록본으로 '대전본' 또는 '대전집본'으로도 불리 운다. 『영락대전』은 1403년 명의 成祖 朱棣 永樂帝가 정치적 안정을 꾀하고 지식인을 회유하고자 解縉에게 유서 편찬을 명하여 『文獻大成』으로 편찬되었다. 이후 재편찬 명령에 따라 약 3천여 명이 동원되어 文淵閣과 각지의 문헌 약 8천종을 수집하여 『洪武正韻』의 韻目에 따라 편집한 대형의 유서이다. 그러나 문연각 소장의 정본은 행방이 묘연해지고 副本만이 皇史宬에 보관되다가 청대 雍正년간에 翰林院으로 이전 보관되었다. 부본도 건륭 년간에 검사할 당시 약 9천여 책만 남아져 있었다(『永樂大典』的悲歡離合). 이 부본의 『영락대전』 문헌 중 『사고전서』 편찬 당시 저본으로 수집한 문헌을 '영락대전본'이라 이른다.

넷째, 그 외 내정 각처 소장본으로 '三通館藏本'과 '翰林院藏本'이 있다. 이들은 存目에서 찾아진다(〈표 7〉 참조). 삼통관은 청대 修書館의 하나로 武英殿修書處였다. 건륭 32년(1767)에 『續通典』, 『續通志』, 『皇朝通典』, 『皇朝通志』의 편찬과 『續文獻通考』, 『皇朝文獻

通考』의 수정 증집을 위해 개관되었다. 한림원은 經筵기관이자 과거 최고 성적으로 합격한 신진사들이 史官이나 庶吉士로 업무의 수습 및 교육을 받는 최고의 학문 기관이었다.

이상과 같이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로서 국가본은 청대의 흠정서 등의 칙찬본과 황실장서인 내부본에서 부터 명대의 영락대전 수록본과 내정 각처에 소장되어 있던 문헌을 출처로 하고 있다.

3.2 지방본

지방본은 '採進本' 또는 '各省採進本'으로 불리우며 浙江巡撫采進本, 江蘇巡撫采進本, 安徽巡撫采進本, 江西巡撫采進本, 兩淮鹽政采進本, 兩江總督采進本 등이 있다. 주로 특정 지방명과 통칭의 지역명을 앞세우고 최고 관직명이나 제도 관리직명을 조합하고 있다.

문헌 출처명으로 조합된 최고관직명으로 總督과 巡撫가 있다(〈표 5〉 참조). 특정 지방명은 浙江, 江蘇, 安徽, 江西 등과 같은 省名이며, 통칭의 지역명은 兩淮나 兩江과 같이 일정하게 구획된 어느 범위의 토지에 대한 지리적 개념이다.

첫째, 최고관직명으로 조합된 첫 번째 문헌의 출처명에는 '兩江總督采進本'이 있다. 즉, 총독은 통상적으로 일개 국가의 자주적 지역의 실제적 또는 명이상의 최고 행정장관이다. 청나라는 하나의 성이나 여러 개의 성의 향정, 경제 및 군사 총괄의 장관을 총독이라 칭하였으며, 존칭은 '督憲', '制台' 등으로 관계는 정이품이다. 1개 성의 행정사무를 보는 순무와는 달라 총독은 여러 성을 관리하고 동시에 정무 외에 군무도 함께 통치하였다.

양강총독은 1647년 청 順治 때에 '江南江西河南三省總督'으로 南京에 주재했다가 1649년에 河南이 直隸로 예속되면서 '江南江西總督'으로 변경되었다. 1652년에는 南昌으로 주재지를 옮기고 '江西總督'으로 변경되었다. 1661년 강서와 강남에 분리된 별도 총독을 설립하였다가 후년에 다시 하나로 합쳤다. 1674년에 다시 분리했다가 1682년에 다시 합병하여 최종적으로 '양강총독'으로 정하였다. 軍務, 糧餉, 操江, 統轄 등의 사무를 총괄하였다. 양강은 江西, 安徽, 江蘇의 3개 直省을 포괄하는 지역명으로 실제 양강총독은 1개 성의 순무 보다 권력이 컸다.

둘째, 두 번째 최고관직명으로 조합된 문헌 출처명에는 浙江巡撫采進本, 江蘇巡撫采進本, 安徽巡撫采進本, 江西巡撫采進本이 있다. 즉, 순무는 관직명으로 "천하를 순행하며 군민을 위로하고 다스린다(巡行天下, 撫治軍

〈표 5〉「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 중 지방본의 각 성별 직위

번호	직위	지역	비고
1	巡撫	浙江, 江蘇, 江西, 安徽, 山東, 河南, 福建, 湖北, 陝西, 山西, 湖南, 廣東	여러 省의 관할
2	總督	兩江, 直隸, 浙閩, 兩廣	1개 省의 관할
3	鹽政	兩淮	염업 제도의 관리
4	府尹	奉天	府의 관할

民)"는 의미이다. 명 태조 주원장이 1391년에 懿文太子 朱標를 파견하여 陝西를 순무하게 한 것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명대 말기에는 1개 省 혹은 그 일부를 관할하는 지방관으로서 20명을 넘었다. 명나라의 순무는 중앙에서 파견한 관리로 중앙관리였다. 청대에는 명의 제도를 답습하였으나 명과 달리 청의 순무는 지방장관직이 되었다. 순무는 포정사, 안찰사, 도지휘사의 상위 관직이 되었으며 대부분 1개 省에 해당하는 지역을 총괄하게 되었다. 즉, 절강순무채진본의 절강순무는 품계는 종이품으로 절강성 지방정무의 최고장관이다.

셋째, 제도 관리직명으로 조합된 문헌의 출처명에는 兩淮鹽政采進本이 있다. 염정은 唐나라 때 재정 확보를 위해 국가에서 소금을 전매하던 일을 이르는 것으로 청대에도 국가에서 염정을 펼쳐 염정관리지구, 염정기구 등을 운영하였다. 이는 '鹽法'이라고도 하며 일반적으로 정부가 소금을 관리하는 제조 생산 운송 판매 제도이다.

양회는 이상의 특정 지방명과 달리 일정 구획의 지역에 대한 지리적 개념으로 淮南과 淮北의 총칭으로 오늘날 蘇皖 두성의 淮河 남북 지방을 이른다. 한편으로는 淮東과 淮西의 총칭으로 蘇皖 두성 江淮 사이의 지방을 이르는 횡적 개념이기도 하다. 따라서 江蘇의 경우 淮南의 범위가 대체로 淮東과 중복된다. 즉, 소금 사업이 국가 전매제도이므로 양회 지역 염정은 중요 상업적 관리기구이자 제도적 관리직이라 할 수 있다. 채진본의 명칭에 양회염정을 사용한 것은 양회 지역의 경우 특별관리직으로 '鹽政'을 두었기에 이를 문헌 출처명으로 취한 경우이다.

이상과 같이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로서 각성채진본 또는 채진본으로 명명되는 지방본은 당시 각 지방의 문헌을 채록하고 해당 지방명과 일정 지역명의 최고 관직명 또는 제도 관리직명을 부기하여 문헌 출처명으로 조합한 것이다. 즉, 총독 출처명은 양강지역 1종이며, 순무 출처명은 절강, 강소, 안휘, 강서의 4종이다. 그리고 제도 관리직명 염정은 양회지역 1종이 있다. 그 외에 존목에 수록된 兩廣總督採進本과 奉天府尹採進本이 있다

3.3 개인본

개인본은 '家藏本'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個人進獻本, 私人進獻本, 個人呈送本 등으로 불리 운다.

건륭 37년(1772) '昭文治之盛'을 위한 『사고전서』 편찬을 위해 전국 각지의 유서 수집 旨諭로 이듬해에 장서가들의 이름이 거명되고, 반년의 시간 내에 각 총독과 순무에서 신속히 처리하도록 칙명으로 하달되었다. 이에 따라 수집된 개인본에는 浙江範懋柱家天一閣藏本, 浙江汪啓淑家藏本, 兩淮馬裕家藏本, 兩淮江廣達家藏本, 浙江鄭大節家藏本, 浙江朱彝尊家曝書亭藏本 등이 있다.

첫째, 浙江範懋柱家天一閣藏本는 절강성 범무주 집안의 도서관 천일각 소장본을 의미한다. 범무주(1721-1780)는 청대 장서가이자 목록학가였다. 자 漢衡, 호 拙吾이며, 절강성 鄞縣(지금의 寧波)사람으로 範欽의 8대손이다.

당시 절강지역의 장서가들은 유명하였는데, 昆山 徐氏의 傳是樓, 常熟 錢氏의 述古堂, 嘉興 項氏의 天籟閣과 朱氏의 曝書亭, 杭州

趙氏의 小山堂 등이 있었다. 그중 범무주의 天一閣이 특히 유명하였으며, 이후 阮元과 함께 『天一閣書目』도 편찬되었다.

둘째, 浙江汪啓淑家藏本는 절강성 왕계숙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왕계숙(1728-1799)은 자 秀峰, 호 訒庵, 一字 愼儀이며, 자칭 印癖先生이다. 청대의 유명한 장서가, 금석학가, 篆刻家로서 안휘성 歙縣사람이며, 杭州에 거주하였다. 장서루로 開万樓와 飛鴻堂이 있었으며 수만책을 소장하였다.

셋째, 兩淮馬裕家藏本은 기본적으로양회 지역 마유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당시 양회 지역의 유명한 마가 집안의 인물로는 馬曰琯과 馬曰璐 형제가 있다.

그중 마일관(1687-1755)은 자 秋玉, 호 嶰谷으로 안휘성 祁門縣人이며, 청대 장서가이다. 본적은 祁門으로 조부 馬承運이 업염을 양회에서 시작하여 대대로 염업에 종사하였다. 淸代 雍乾 시기에 揚州의 馬曰琯과 馬曰璐 형제가 건축한 小玲瓏山館에는 叢書樓가 있고 장서가 매우 풍부하였다. 이들과 관련하여 양회 염정 李質穎은 상인 마유에게 도서 195종을 빌려 서목을 먼저 북경으로 보내고 이후 일부 도서를 蘇州 書局에서 校勘하였으며, 일부는 揚州로 보내 베꼈다는 기록도 있다(孫文良 2001).

다만, 아들 두 명이 당시에 헌사했으나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兩淮商人馬裕家藏本' 처럼 마유라고 기술하고 있으나 '마유'는 인명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즉, 『兩淮鹽法志』와 『淸實錄』의 두 사료에 따르면 '馬裕'는 마가상호로 추저정되고 있다(陸惠敏 2017). 즉, 마유는 청대 장서가 마일관의 아들이거나 또는 사람이름이 아니고 마가의 상호일 것으로 보인다.

넷째, 兩淮江廣達家藏本은 기본적으로 양회 지역의 강광달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강광달은 淮南 北商사람으로 양회 總商으로 알려지기도 하였는데(兩淮鹽商破敗之局), 청 건륭 년간에 양회지역에서 鹽務總商 40년을 지낸 江春(1720-1789, 字 穎長, 號 鶴亭)에 대한 기록을 보면 江廣達은 鹽務 상호명으로 나온다(Wikiwand). 즉, 이는 전술의 양회 마유와 같이 성명이 아닌 상호명을 문헌 출처명으로 명명한 경우로 보인다.

다섯째, 浙江鄭大節家藏本은 절강성 정대절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정대절(1705-?)은 청대 장서가로 자 臨之, 호 籜坨, 만호 補牢翁이다. 鄭梁의 손자이고 鄭性의 장자로 절강 慈溪사람이다. 조부와 부의 장서가 풍부하여 장서루를 '二老閣'이라 불렀다(江慶柏 2008).

여섯째, 浙江朱彝尊家曝書亭藏本은 절강성 주이존의 가정본으로 장서루 명인 폭서정를 출처명에 포함하고 있다. 주이존(1629-1709)은 자 錫鬯, 호 竹垞 및 醧舫, 만호 小長芦釣魚師, 별호 金風亭長로 절강성 秀水사람이다. 청대의 학자이자 장서가이며, 명대 대학사 朱國祚의 증손이다. 經史에 박학다식하여 『明史』 찬수에 참여하였다. 장서 8만권을 소장하였으며, 장서루 曝書亭 원명은 '竹垞'이다.

종합적으로 개인본은 건륭 37년(1772)의 문헌 수집 유지에 따라 장서가들이 개인 또는 가문 소장의 문헌들을 진헌한 경우로서 절강 4곳의 장서가와 양회 2곳의 상인이 진헌하였다. 개인본의 경우 개인 장서루명이 출처명에 포함되기도 하였으며, 상인의 경우 이후 진일보한 고증의 여지가 있으나 성명이 아닌 상호명을 출

처명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3.4 관원본

관원본은 '가장본'으로 명명되어 개인채진본의 일종을 알려져 있기도 하고 인명이 포함되어 개인진헌본으로 혼돈되어 연구되기도 하였다. 이는 개인본이 주로 장서가나 상인인 것과 달리 관직에 임용된 사람으로 관직명과 성명을 조합하고 있다(〈표 6〉 참조). 이를 가족본으로 분류하는 연구자도 있으며(江慶柏 2007), 『四庫采進書目』에는 在京官員의 문헌 정송 상황이 포함되어 있다(吳元 2015).

관원본에는 大理寺卿陸錫熊家藏本, 大學士于敏中家藏本, 大學士英廉家藏本, 兵部侍郎紀昀家藏本, 戶部尙書王際華家藏本, 編修邵晉涵家藏本, 編修周永年家藏本, 編修程晉芳家藏本의 8종이 있다.

첫째, 大理寺卿陸錫熊家藏本은 대리사경인 육석웅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대리사는 중국 고대의 형벌과 감옥 관장 심리기관이며, 대리사경은 전국 삼대사법 장관의 하나로서 정삼품이며, 전국 형벌 및 법무 최고 장관이다.

육석웅(1734-1792)은 자 健男, 호 耳山, 만호 淞南老人으로 강소성 상해사람이다. 청대 정치인으로 건륭 26년(1761)에 진사로 출사하였으며, 『사고전서』 總纂官을 지냈다. 건륭 52년(1787)에 『사고전서』 중 朝廷字句가 훼손된 서적이 발견되어 육석웅와 기윤이 비용을 분담하고 重新修正을 담당하고 있다. 건륭 56년(1792) 東北 文溯閣 『사고전서』를 중교하면서 사망하였다.

둘째, 大學士于敏中家藏本은 대학사인 우민중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대학사는 주로 內閣大學士로서 殿閣大學士로도 불리운다. 청대의 대학사는 정일품으로 일명 '相國'으로 문신 중 최고직위이며, 일반적으로 황제의 고급 비서관이다.

우민중(1714-1780)은 자 叔子, 重棠이며, 호 耐圃로 강소성 金壇사람이다. 漢翔의 손자이고 樹范의 아들로 명문대가 출신으로 청대 중신이었다. 1773년 사고전서관 개관시 內閣大學 劉統勳이 반대함에도 중심역할을 하였고 사고전서관 正總裁가 되었다.

〈표 6〉 사고전서관 직관과 관원

구분	성명
正總裁	劉統勳 - 劉綸 - **于敏中** - 福隆安 - 裘曰修 - **王際華** - 質親王 永瑢 - 舒赫德 - 蔡新 - 程景伊 - 嵇璜 - **英廉** 阿桂 - 儀親王 永璇 - 成親王 永瑆 - 和珅
副總裁	曹秀先 - 張若溎 - 李友棠 - **金簡** - 慶桂 - 董誥 - 劉墉 - 錢汝成 - 沈初 - 梁國治 - 王杰 - 鐘音 曹文埴 - 彭元瑞
總纂官	**紀昀** - **陸錫熊** - 孫士毅
各 部	經: 戴震, 史: **邵晉涵**, 子: **周永年**, 集: **紀昀**
協勘官總目官	劉權之 - 汪如藻 - **程晉芳** - 李 潢 - 梁上國 - 任大椿 - 張羲年
四庫全書纂修考	**于敏中**, **王際華**, **紀昀**, **陸錫熊**, 陸費墀, **周永年**, 戴震, **邵晉涵**, 翁方綱, 程晉芳, 任大椿

* 진한색: 관원본 채진 관원

셋째, 大學士英廉家藏本은 대학사 영렴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영렴(1707-1783)은 馮氏로 자 計六, 호 夢堂과 竹井老人으로 遼宁省 沈陽사람이다. 청대 대신으로 直隶總督과 東閣大學士 등을 역임하였다. 사고전서관 총재도 담당하였다.

넷째, 兵部侍郎紀昀家藏本은 병부시랑 기윤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병부시랑은 병부 부장관으로 현재의 국방부 부부장으로 청대 품계는 정이품이다. 육부의 하나인로 전국의 무관 선발과 병적, 군계 군령 등의 책임을 담당하였다.

기윤(1724-1805)은 자 曉嵐 및 春帆, 만호 石雲, 호 觀弈道人, 孤石老人, 河間才子으로 代直隸獻縣 사람이다. 건륭년간의 유명한 학자이자 정치가로서 병부시랑, 礼部尙書, 協辦大學士를 역임하였고, 사고전서관 總纂修官을 지냈다.

다섯째, 戶部尙書王際華家藏本는 호부상서 왕제화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호부상서는 육부의 하나인 호부의 최고장관으로 오늘날의 재정부 장관에 해당되며, '司徒', '司農', '民曹', '地官'으로 불리웠다. 주로 국가경제, 호구, 세무, 농상 등 국가예산 등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왕제화(1717-1776)는 자 秋瑞이며, 청대 정치인으로 절강성 錢塘縣사람이다. 청대 장서가이자 문학가이며 대신이었다.『사고전서』편찬시 總閱, 總纂, 總校, 提調, 協勘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여섯째, 編修邵晉涵家藏本은 편수 소진함의 가장본을 의미한다. 편수는 관직의 하나로 송대에 시작되었으며, 청대의 품계는 정칠품이다. 이 관직은 주로 인재예비 기능의 한림원 소속으로 典簿記載를 담당하였다.

소진함(1743-1796)은 청대 유명한 학자, 사학가, 經學家이다. 자 與桐, 호 二云과 南江으로 절강성 余姚사람이다. 사고전서관 편수로『사고전서』史部 편찬을 담당하였으며, 사부서적 대부분의 최후 교정을 담당하였다.

일곱째, 編修周永年家藏本은 편수 주영년의 가장본으로 존목에 기록되었다. 주영년(1730-1791)은 청대 저명한 학자이자 장서가로서 자 書昌이며, 산동성 사람이다.『사고전서』子部 편찬을 담당하였다.

열덟째, 編修程晉芳家藏本은 편수 정진방의 가장본이다. 주진방(1718-1784)은 자 魚門, 호 蕺園으로 강소성 江都사람이다. 건륭 36년(1771)에 進士가 되어 한림원 편수였다가『사고전서』總目協勘官이 되었다.

아홉째, 그 외『사고전서편수고』에 재경관원으로 분류되어 있는 '桂林府同知李文藻刊本'과 '廣東潮陽縣知縣李文藻家刊本'이 있다. 이문조(1730-1778)는 자 素伯과 畹, 만호 南澗으로 산동성 益都사람이다. 그는 산동의 유명한 서예가 정서가, 금석가이자 문학가이다. 평생을 藏書와 刻書에 전념하였으며, 그의 장서루명은 '竹西書屋'이다. 건륭 26년(1761)에 進士, 34년에 廣東恩平 潮陽知縣을 역임하고 廣西桂林府同知에 이르렀다.

관직명으로 명명하고 있으나 가장본이 아닌 간본 또는 가간본이라 한 것은 당시 장서가와 달리 서책 간행을 많이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문조는『사고전서』편찬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관직명으로 출처명이 명명되었기에 관원본에 포함하였다. 한편, 이문조의 경우 관직명도 '계림부동지'와 '광동조양현지현'의 두 가지를 사용하여 출처명을 명명하였으며, 출처 종류

도 '간본'과 '가간본'의 두 가지이다.

종합적으로 관원본은 '가장본'으로 명명되어 개인채진본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나 개인본과는 달리 관직명과 성명을 조합하고 있다. 이는 개인본이 주로 장서가나 상인인 것과 달리 관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공통점은 『사고전서』 편찬 등에 참여한 것이다. 대부분의 관직명은 해당 인물 역임의 최고관직으로 명명하고 있고, 그중 영렴의 예에서 보이듯이 중앙관직과 지방관직을 역임하였다면 중앙관직명을 취하고 있다. 한편 소진함과 주영년의 경우 『사고전서』 편수 역임이 대표적인 관직이기에 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표 5〉 참조).

3.5 사회유통본

사회유통본에는 '통행본'과 '구입본'이 있다. 이는 당시 『사고전서』 편찬을 위한 문헌 수집에 따른 정송이나 채진된 것이 아닌 경우로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는 '通行本'과 '購進本'으로 명명하고 있다.

첫째 통행본은 당시 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던 문헌을 의미한다. 즉, 방각은 민간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간행한 것이기에 이에 대하여 『사고전서총목제요』 卷首에 "其坊刻之書不可專題一家者 則註曰通行本"이라 설명하고 있다(리상용 2017). 이를 통해 통행본은 민간의 '방각본'으로 일가 만이 아니기에 방각본 대신 통행본으로 명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구입본(購進本)으로는 '大學士英廉購進本'과 '侍郎金簡購進本'이 있다. 당시 사고전서관의 정총재 영렴과 부총재 김관이 구입하여 들여온 문헌에 대한 출처명이다.

'大學士英廉購進本'은 대학사 영렴이 구입하여 수록된 문헌이며, 대학사 영렴은 이외에 전술하였듯이 사고전서관 관원으로 관원본을 정송하기도 하였다.

'侍郎金簡購進本'은 시랑 김간이 구매하여 수록된 문헌을 의미한다. 시랑은 관직명으로 명청시대 정부각부의 副部長으로 지위는 尙書 다음이다. 이는 한대에 시작되어 20세기 초 까지 존재하였다. 청대에는 정이품까지 승진할 수 있었으며, 종일품의 尙書와 같은 각부의 장관이다.

김간(?-1794)은 건륭으로부터 '金佳氏'란 성을 하사받았고, 그의 여동생은 淑嘉皇貴妃가 되었다. 김간은 고려인으로 불리 운 저명한 학자로서 사고전서관 부총재였으며, 대추나무로 활자를 만들어 武英殿 聚珍版 2,891권을 간행하였다.

이상과 같이 사회유통본은 당시 사회에서 방각본으로 유통되거나 사고전서관 관원이 구입한 문헌이다. 특히 방각본 대신 통행본으로 출처명을 순화하여 명명하였다.

4.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석

이상으로 조사한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류와 종류를 정리하면 〈표 7〉과 같다.[1]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류와 종류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고전서』 수록 문헌의 출처는 『사고전서총목제요』 저록에 기술되고 이후 『사고전서찬수고』와 같은 저서와 선행연구 등에게 다양하게 분류되어 왔다. 이를 유사용어 등을 정리하

면 勅撰本, 內府本(內府藏本, 內府刊本), 永樂大典本, 各省採進本, 個人進獻本(私人進獻本, 個人呈送本, 家藏本), 官員採進本(家藏本, 家族本), 通行本, 三通館藏本 및 翰林院藏本의 9종으로 구분된다.

둘째, 9종의 문헌 출처는 수집된 문헌의 지리적 범위와 성격을 기준으로 다시 국가본, 지방본, 개인본과 관원본 및 사회유통본의 5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중 개인과 관원은 가장본으로 알려져 오거나 일부 구분이 시도되었으나 장서가와 관원의 차이로 실제 수록 문헌 출처명의 조합에도 차이가 있으므로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셋째, 국가본의 경우 勅撰本, 內府藏本, 內府刊本, 永樂大典本, 三通館藏本, 翰林院藏本이 포함된다. 그중 칙찬본의 경우 『사고전서총목제요』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헌 출처의 분류는 아니나 봉칙서적이나 제왕의 서적으로 분류해 온 기존 용례 따른 것이다. 또한 三通館藏本과 翰林院藏本은 존목에 수록된 것으로 일종의 내정 각처의 수장본이므로 국가본으로 포함하였다.

넷째, 지방본의 경우 각성채진본으로 주로 채진본으로 알려져 왔다. 이는 지방명과 일정 구획의 지역명과 해당 지방의 최고관직명인 총독과 순무 그리고 특별제도 관리직인 염정을 조합하여 명명하고 있다. 그 외 저록에 포함되어 있는 부윤도 조사되었다. 즉, 순무 12곳, 총독 4곳, 염정 1곳, 부윤 1곳이다(〈표 7〉 참조). 총독은 여러 성의 최고 장관이고, 순무는 1개 성의 최고 관직이다. 부윤은 한 府의 행정사무를 맡아 보던 으뜸 벼슬이며, 염정의 경우 염업의 제도적 관리직이다.

다섯째, 사회유통본의 경우 통행본과 구입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는 당시 사회에 유통되고 있는 문헌과 구입의 방법으로 수집한 경우이다. 존목에 수록되어 있는 구입본은 대표적으로 사고전서관 총재 영렴과 부총재 김간의 구입본이 있다. 관직명과 성명으로 조합하고 있다.

여섯째, 개인본의 경우 건륭 3년(1772)에 '進呈備用' 요구에 따라 각 장서가들이 진정 즉 진헌한 것이다. 장서루가 있는 경우 개인본의 경우 수록 문헌 출처명에 장서루명이 포함된 경우와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절강범무주가천일각장본'과 '절강주이존가폭서정장본'은 장서루명이 출처명에 포함된 경우이다. 반면, '절강왕계숙가장본'과 '절강정대절가장본'는 장서루로 '개만루'와 '비홍당' 그리고 '이로각'이 있었으나 장서루명은 출처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개인본은 개인명이 출처명에 포함되고 있으나 상인의 경우 '마유'와 '강광달'의 경우 성명이 아닌 상호명으로 명명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양회지역의 실세인 염무 상인으로 상호명으로 출처명을 명명하였다는 것은 청대의 명분 중시의 일면을 보여주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일곱째, 관원본은 '가장본'으로 명명되어 개인채진본의 일종으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대리사경육석웅가장본, 대학사우민중가장본, 대학사영

1) 『四庫全書纂修考』(郭伯赫 著, 王雲五 編, 1951)의 附錄二 '四庫全書依據書本一覽表'를 재정리하고 저록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원래 〈표 1〉과 같이 9종으로 분류되어 있는 것을 이 논고의 조사에 따른 분류와 종류를 반영하여 수정 정리하였다. 일부 기존 가장본 중 '재경'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이후를 기약하며, 일부 성명의 경우 고증이 이루어진 것도 있으나 반영하지 않았다.

〈표 7〉『사고전서총목제요』문헌 출처

분류	문헌 출처		저록	문헌 출처		저록	비고
국가본	內府藏本		299	在京	劉亨地		- 문헌 출처: 5종
	內府刊本		30		朱均	12	
	三通館藏本				蕭芝		
	翰林院藏本				邵晉涵	2	- 채진본 19종
	永樂大典本		389		劉權之	3	-- 채진본저록 총 1,451
	勅撰本		149		戈岱		
지방본	浙江巡撫		366		曹學閔	1	
	兩江總督		251		方維甸	1	- 개인본
	江蘇巡撫		310		徐天柱	1	-- 절강 9처
	兩淮鹽政		133		吳壽昌		-- 강소 2처
	江西巡撫		61		蕭際韶		-- 양회 2처
	安徽巡撫		128		曹錫齡		-- 개인본저록 총 558
	山東巡撫		51		李潢	2	-- 절강 저록 총 534
	直隸總督		38		程景伊	1	-- 강소 저록 총 16
	河南巡撫		12		翁方綱	1	-- 양회 저록 총 145
	福建巡撫		58		任大椿		
	湖北巡撫		13		周厚轅		
	陝西巡撫		8		蔡新	2	
	山西巡撫		8		張羲年	1	- 관원본
	湖南巡撫		7		梁上國		-- 재경78처
	奉天府尹				吳典		-- 관원본 저록 총 348
	浙閩總督		5		戴震		
	廣東巡撫		2		林樹蕃		
	兩廣總督				蔡廷擧		- 구입본
사회유통본	통행본		100		崔應階	1	
개인본	浙江	吳玉墀	52		閔惇大		
		汪啓淑	59		德保		
		汪如璟	33		韋謙恆		
		孫仰曾	26		都保		
		鮑士恭	250		莊承籛	1	
		朱彝尊	5		查瑩		
		范懋柱	95		章銓	1	
		鄭大節	14		顧葵		
	江蘇	周厚堉	7		金簡	+구입본	
		蔣曾瑩	9		陳昌齊	1	
	兩淮	馬裕	144		王杰	2	
		江廣達	1		金甡	1	
관원본	在京	黃登賢	48		丁田樹		
		勵守謙	30		彭紹觀		
		紀昀	62		張燾	1	
		程晉芳	15		孟生蕙		
		周永年	4		張道源		
		陸錫熊	12		倪承寬		
		汪如藻	90		戈源		
		李文藻	5 +간본		張愼和		
		王際華	1		劉天成		
		李友棠	1		熊志契		
		張若溎	7		李中簡		
		張若渟	1		鄒炳泰	1	* 바탕색: 최다 1,2위
		鄭際唐	1		汪承霈	1	
		胡季堂	1		祝堃	2	* 진한색: 사고전서관 관원
		王汝嘉			祝德麟		
		王昶	2		盧遂		* 빈칸: 존목 수록
		孔昭煥	9		劉錫嘏		
		曹秀先	5		許寶善	1	+추가조사
		英廉	7 +구입본		邵庚曾		
		陸費墀	7		嚴福	1	* 저록 대상, 존목 생략
		于敏中	9	구입본			

렴가장본, 병부시랑기윤가장본, 호부상서왕제화가장본, 편수소진함가장본, 편수주영년가장본, 편수정진방가장본의 8종으로 관직명과 성명을 조합하고 있다. 이는 개인본이 주로 장서가나 상인인 것과 달리 관직에 재직한 사람으로 이들의 공통점은 『사고전서』 편찬 등에 참여한 것과 주로 재경관원이라는 것이다. 관직명은 해당 인물의 당시 최고관직 및 중앙관직으로 명명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사고전서』 편찬을 위하여 문헌 수집의 유지가 내려졌을 때 관원들이 자신 가족의 문헌을 정송한 것이며, 이를 반영하여 가족본으로 분류하는 연구자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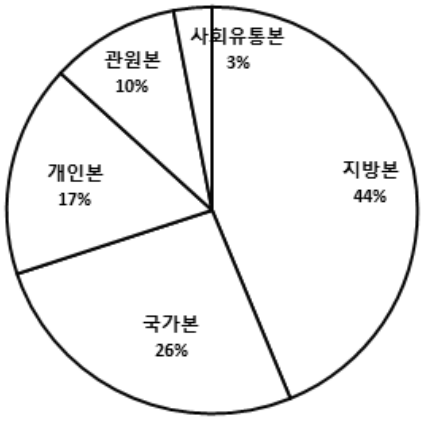
한편, 『사고전서총목제요』 수록 문헌에 대한 수량적 분석을 진행한 결과, 전국적 규모로 수집하고 있으며, 『사고전서찬수고』에서 기술하고 있는 문헌수를 보면 지방본 1,451종, 개인본 558종, 관원본 348종, 영락대전본 389종, 내부장본 299종, 칙찬본 149종, 사회유통본 중 통행본 100종(구입본은 존목 수록으로 생략), 내부간본 30종의 순으로 지방본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그림 1〉 참조). 또한 이 논고에서의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를 종합 분류 기준으로 살펴보면 영락대전본 389종, 내부장본 299종, 칙찬본 149종, 내부간본 30종 867종을 합산한 국가본(삼통관장본과 한림원장본은 존목 수록으로 생략) 총 867종 보다 지방본이 많이 채록되었다(〈그림 2〉 참조).

5. 결 론

청 건륭 년간에 국가적 사업을 진행된 『사고전서』 편찬을 위해 전국적 문헌 수집 유지에 따라 각처의 문헌이 수집되고 이후 목록해제서인 『사고전서총목제요』에 각 문헌 출처 또한 기술하였다. 이에 이 논고는 『사고전서총목제요』 문헌 출처의 분류와 종류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各省採進本, 通行本, 個人進獻本, 內府藏本, 內府刊本, 三通館藏本, 翰林院藏本, 永樂大典本, 勅撰本, 通行本, 家藏本, 家族本 등으로 알려져 있는 문헌의 출처를 지리적

〈그림 1〉 문헌 출처의 비율 1



〈그림 2〉 문헌 출처의 비율 2

범위와 성격에 따라 국가본, 지방본 및 사회유통본 과 개인본과 관원본의 5종으로 분류 고찰하였다.

둘째, 내부본과 칙찬본 등은 국가본으로 분류하고 각 지방과 지역의 채진본을 지방본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의 일명 '官員採進本'은 총독과 순무 등의 최고 관직명이 조합된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이는 실제 각성채진본인 지방본이다.

셋째, 가장본으로 명명하여 구별이 명확하지 않고 성명이 조합에 포함되어 있어 통합하여 개인진헌본으로 분류하던 것을 개인본과 관원본으로 구별을 명확히 하였다. 특히 가족본으로 분류하거나『사고전서찬수고』에서 가장본의 일종으로서 지역을 '재경'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이는 일개 私人과 달리 관직명과 성명으로 조합한 사고전서관 관원들이므로 별도로 관원본으로 분류하였다.

넷째, 개인본은 6종으로 청대 장서가와 상인으로 지방명 또는 특정 지리개념의 지역명과 성명을 조합하고 있다. 특히 장서가의 경우 장서가명이나 장서루명이 조합되고 있는 반면 상인의 경우 성명이 아닌 상호명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밝혔다.

다섯째, 관원본은 총 10종으로 관직명과 성명을 조합하고 있다.『사고전서』편찬을 위한 문헌 수집의 유지가 내려졌을 때 관원들이 자신 가족의 문헌을 정송한 것이다. 이는 관직명이 조합되어 있으나 실제는 사고전서관 직관의 정총재와 부총재 및 편수 등의 관원들임을 밝혔다. 또한 재경관원으로 문헌 출처명의 관직명은 해당 인물의 당시 최고관직 또는 중앙관직으로 명명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섯째, 사회유통본은 당시 사회에서 유통되던 통행본 외에 존목에 수록되어 있는 경우이나 구입본(購進本)을 포함하였다. 통행본의 경우 실제는 방각본으로 만간의 일가 만이 아닌 것 외에 영리목적의 문헌이므로 용어를 순화하여 통행본으로 출처명을 명명하였음을 밝혔다.

일곱째,『사고전서찬수고』에 의거하여 수량적 분석 결과『사고전서총목제요』에 저록된 문헌은 국가에서 개인에 이르기 까지 전국적 범위로 수집되었으며, 문헌수는 지방본, 국가본, 개인본, 관원본, 사회유통본의 순으로 많이 채집되었음을 살폈다.

여덟째,『사고전서총목제요』문헌출처의 조사분석을 통하여 1) 관원본의 관직명의 경우 사고전서 직관보다는 관원의 최고관직명을 취하고 있으며, 높은 지방관직명보다는 중앙관직명을 취하고 있는 점, 2) 상인의 경우 상인의 성명보다는 상호명을 취하고 있는 점, 3) 당시 사회에서 유통되는 방각본 대신 새로운 명칭으로 통행본을 명칭으로 취하고 있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이를 통해『사고전서총목제요』문헌출처의 명칭 기술에서 다소 명분을 중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최근『사고전서』또는『사고전서총목제요』각 수록문헌의 '사고저본'과 관원본인 '浙江鄭大節家藏本'의 진헌 문헌 종수에 대한 직관인적 조사도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문연각사고전서』자체의 중복과 저록과 존목 간의 일부 중복의 문제에 대한 서지학적 고찰이 이루어 지고 있다(羅琳 2016). 이러한 연구들은 고전자료에 대한 연구 기반 구축을 위한 서지학적 연구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이 논고 또한 서지학적 연구 및 관련 연구에 일조가 되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1] 江慶柏. 2007. 四庫全書私人呈送本中的家族本.『圖書館雜志』, 26(1): 57-62.
[2] 江慶柏. 2008. 四庫全書私人呈送本中的鄭大節家藏本.『圖書館工作与研究』, 6: 56-58.
[3] 郭伯赫 著, 王雲五 編. 1951.『四庫全書纂修考』. 北京: 臺灣商務印書館印行.
[4] 杜澤遜. 2003.『四庫』底本與『永樂大典』遭焚探秘.『中華讀書報』, 2月 26日.
[5] 羅琳. 2016.“‘‘四庫館臣”之重復.”『文獻研究新視野: 第四屆中國古典文獻學國際學術研討會』, 台灣東吳大學, 5月20日-21日.
[6] 리상용. 2017.『四庫全書總目提要』의 목록기술방식에 대한 연구.『서지학연구』, 69: 267-286.
[7] Baidu(百度百科). [online] [cited 2019. 3. 12.] 〈https://baike.baidu.com/〉
[8] 樊美珍, 馮春生. 1995.『四庫全書總目』著錄底本來源統計.『上海高校圖書情報學刊』, 2: 54-55.
[9] 徐進, 宋月陽. 2018. 從『四庫全書』私人進獻本看清初私家藏書.『圖書館界』, 3: 48-54.
[10] 孫文良. 2001.『乾隆皇帝』. 臺北: 知書房出版社.
[11] 楊果霖. 2005.『四庫全書總目提要』著錄「內府藏本」研究.『醒吾學報』, 第29期: 73-90.
[12] 楊洪升. 2008.『四庫全書』底本續考.『聊城大學學報(社會科學版)』, 5: 65-69.
[13] 楊洪升. 2009.『四庫全書』底本考.『圖書館雜志』, 28(6): 71-75.
[14] 兩淮鹽商破敗之局.『中國經營報』. [online] [cited 2019. 3. 22.] 〈http://www.cb.com.cn/index/show/sd_m/cv/cv135103891319〉
[15]『永樂大典』的悲歡離合.『人民日報』2003年 9月 24日.
[16] 吳元. 2015. ≪四庫全書≫ 官員獻書群体考略.『圖書館工作与研究』, 3: 70-75.
[17] 吳慰祖. 1960.『四庫採進書目』. [臺北?]: 成文出版社.
[18] Wikipedia(維基百科). [online] [cited 2019. 3. 12.] 〈https://zh.wikipedia.org/wiki/Wikipedia:%E9%A6%96%E9%A1%B5〉
[19] 張升. 2008. 四庫全書的底本与稿本.『圖書情報工作』, 52(11): 143-146.
[20] Chinabaike(中國百科網). [online] [cited 2019. 3. 14.] 〈http://www.chinabaike.com/〉
[21] 韓非木 編, 沈暎俊 譯. 1971.『中國의 典籍』.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22] Wikiwand. '江春'. [online] [cited 2019. 4. 2.] 〈https://www.wikiwand.com/zh-hk/%E6%B1%9F%E6%98%A5〉

• 국문 및 중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nd Chinese)

[1] Qingbai Jiang. 2007. “Family Writings in the Privately submitted Books of Imperial Collection

of Four." *Library Journal*, 26(1): 57-62.

[2] Qingbai Jiang. 2008. "The Domestic Edition of Zheng Dajie's in the Personally Submitted Books of the Complete Library of Four Branches of Literature." *Library Work and Study*, 6: 56-58.

[3] Boxie Guo, Yunwu Wang ed. 1951. *Study of Sikuqunshu Publishing*. Beijing: Taiwan Shangwu Pub.

[4] Zexun Du, 2003. "Research on Original Text of *Siku* and Incinerated *Yongledadian*." *Newspaper of Chinese Reading*, Feb. 26.

[5] Lin Luo. 2016. "Overlapped Wok by Subordinates of *Siku*." *New sight of the Study of Books: The 4th Symposium on China's Classical Books*. Taiwan Dongwu Univ. May 20-21.

[6] Sangyong Lee. 2017. "A Study on the Bibliographical Description of the *Sikuquanshuzongmutiya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9: 267-286.

[8] Meizhen Pan and Chunsheng Ping. 1995. "Research on Literature Source and Statistics Regarding Main Description of *Sikiquanshuzongmu*."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of Shanghai HS*, 2: 54-55.

[9] Xu Jin and Song, Yue-yang. 2018. "Research on Private Libraries based on Individually Contributed Books for *Sikuquanshu*." *Library World*, 3: 48-54.

[10] Wenliang Sun. 2001. *Emperor Qianlong*. Taipei: Zhishufang Pub.

[11] Guo Lin Yang. "A Research of Recording of Palace Collection in *Sikuquanshu*." *Xingwuxuebao*, 29: 73-90.

[12] Hong-sheng Yang. 2008. "Continued Study of A Copy for the Record about Complete Library in Four Divisions." *Journal of Liaocheng University (Social Sciences Edition)*, 5: 65-69.

[13] Hong-sheng Yang. 2009. "Study of a Copy for the Record about Complete Library in Four Divisions." *Library Journal*, 28(6): 71-75.

[14] "Failure status if salt merchants in Two Hui area." *China Business Newspaper*. [online] [cited 2019. 3. 22.] 〈http://www.cb.com.cn/index/show/sd_m/cv/cv135103891319〉

[15] "Tragic Disappearance of *Yongledadian*." *Renminribao*, Sep. 24, 2003.

[16] Wu Yuan. 2015. "Official Groups of Offering Books to the Complete Library of Four Branches of Literature." *Library Work and Study*, 3: 70-75.

[17] Weizu Wu. 1960. *Siku Collection Catalogue*. [Taipei]: Chengwen Pub.

[19] Sheng Zhang. 2008. "The original Text and Draft of *Sikuquanshu*." *Book and Information Works*, 52(11): 143-146.

[21] Bimok Han version. Translated by Woo-jun Shim. 1971. *Classical Books of China*. Seoul: KLA.